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가 스승에게 절을 해야지, 스승이 제자에게 절을 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하여 스승님의 영정을 내가 모셔야지, 스승이 제자인 나의 영정을 모셔야 되겠는가? 우리 스승님이 세상 가시는 길을 내가 배웅해 드려야지, 스승이 나를 배웅하게 만들어서야 어디 동방예의지국의 선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 긴급조치를 기념한다는 것



정 경 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 경인지역 현장노동운동, 진다리필방 운영, 새정치국민회의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현)

내가 긴급조치와 접하게 된 것은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러니까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었다. 교정에는 1929년 광주 학생항쟁을 기념하는 광주학생운동기념탑이 있다. 교문 왼편에 위치한 학생탑에는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아래쪽에는 여남은 명의 학생들이 단추를 몇 개씩 풀어재긴 교복 차림이거나 런닝셔츠 바람으로 어깨를 결고 있거나 팔뚝을 걷어 부치고 주먹을 불끈 쥐 채 눈깔을 치뜨고 분노에 차서 응시하고 있는 저항의 모습을, 얼핏 보기에다 꽤 불량기 있고 험상궂은 모습을 담은 부조가 새겨져 있다.

광주일고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서중학교 시절에도 학생탑을 보았지만 학생탑은 나와는 거리가 먼 옛날 얘기거나 그냥 자랑거리 수준이었지 별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선배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는 본래 의미로 다가선 것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한참 지나서였다. 1학년 초에 ‘광량’ 독서회에 가입하였는데, 국내외 명작소설을 한 편씩 읽고 토요일 오후 빈 교실에서 모여 토론하는 게 주된 활동이었다. 독서회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농촌활동도 가고, 등산, 낚시 등으로 선배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종종 있었다. 그때 선배들

한테서 한국사회의 현실이나 특히 유신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씨알의 소리>도 구독하면서 사회 인식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2학년 겨울 방학은 나에게도 예비 고3으로써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름대로 중요한 시절이었다. 우리 어르신은 대입 공부에 매진하라고 어려운 살림에도 학교 앞에 다소 비싼 자취방까지 얻어 주셨다. 그런데 나에게겐 고민이 생겼다. 독서회 활동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선배님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유신정권에 맞서 전국의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광주일고와 전남여고가 참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번 전국적 시위가 잘 되면 유신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종식될 수도 있으며 만약 이 거사가 실패하면 향후 오랫동안 학생운동도 어렵고 민주주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정말 내년 3월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이었다.

광주일고는 일제하부터 저항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이번 거사에 광주일고가 빠지는 것은 나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배는 박정권의 종식까지 내다보았지만 나로서는 1인 집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10월유신이라는 쿠데타로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박정권이 쉽게 물러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 학교가 일시에 일어선다면 특히 고등학교까지 들고 일어선다면 그리 되지 말란 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시위를 하려면 누군가는 주동을 서야 하고, 박정권 타도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빨갱이로 몰려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대학입시를 1년 앞둔 나로서는 선뜻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발뺌할 명분도 찾지 못하였다. 시위를 주동해 희생되는 일이 내키지 않았던 마음과 전국적 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어떻게든 빠져 나갈 구실을 찾기로 하였다. 먼저 독서회 회원들과 의논하고 서중 시절 학생회장을 지냈고 친구들한테 신망이 있던 지병주와 상의를 하였다. 3학년이 되자 반장들이나 적절한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학교 앞에 있는 우리 자취방은 모임하기에 아주 좋았다. 한두 친구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접촉한 대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데 쉽게 동의하였다. 같이 주동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고 그만두려 했었는데, 대부분 광주일고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명분에 동조하고 나서자 나는 짐 부리고 발 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나는 선배와 학교 시위 준비모임 간에 연락을 맡아야 했다. 선배가 전하는 고무적인 전국의 준비상황을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전국적 봉기에 참여하자는 결의와 준비 상황을 선배에게 알렸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던 중에 박정권은 긴급조치4호를 발동하여 소위 민청학련이라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였다. 그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던 선배와의 연락도 끊기게 되자 학교 준비모임도 일단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하였다. 그 후 선배가 잡히고 수사가 확대되어 전남 도경 대공본실로 끌려가 온종일 굶은 채 얻어맞기도 하고 몇달 뒤 육군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클에 가입하거나 시위를 주도하면 어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던 나로서는 대학 신입생이면서도 서클 가입도 자제하고 설혹 시위가 있더라도 단순가담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75년 3월 말부터 시위는 시작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몸조심을 하면서 강당의 성토대회에도 참여하고 대운동장의 집회에서도 목청 높여 노래도 부르고, 투석전에도 참여하고, 대광고등학교 쪽으로 진출한 가두시위 대열에도 참여했다가 쫓기어 학교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긴급조치7호를 맞았다. 집총한 군인들이 교문을 지키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아야 했다. 많은 선배 동료가 학교에서 재적되었고 군대로 끌려갔다. 유신 정권은 월남이 공산화되자 관제 안보궐기대회까지 치르게 한 후 휴교령을 풀어 학교를 열어 주고, 긴급조치9호를 발동하였다.

신록이 푸르러 아름다운 교정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욕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움을 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같은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서 한국근대사 공부를 하기로 했다가 차츰 2학년이 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어 고교 동문의 벽을 넘어서는 지하 학습 모임으로 발전되어 갔다. 안병직 교수의 <3.1운동>을 읽고 사이비 독립운동가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돌려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반공 교육의 허구에 전율하였다. 조용범 교수의 <후진국경제론>을 읽으면서 고도성장의 망령을 타매하였다. 당시

금지였던 김지하의 시를 읽고 신동엽 시인의 ‘껌테기는 가라’를 외쳤다.

화장실에 놓아둔 유인물로도 금방 검거될 정도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보원의 눈에 포착되기 때문에 시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누구누구가 프락치일 거라는 소문만 무성해 갔다. 막걸리를 마셔대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사노라면’을 부르면서 녹초가 되도록 운동장도 돌았다. 책을 읽어 보았자 허망하게만 느껴지고 시위는 옛날 좋은 시절의 추억이 될 정도로 답답한 시절이 지속되었다. 행동할 수 없게 숨막히는 학교 생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학습조차 팽개치고 좌절하는 동료들이 늘어났다. 스스로 군대를 자원해 가는 동료들도 생기면서 학생운동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는 듯 했다.

부도덕한 유신독재 정권이 고도 경제성장 정책에 성공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아 가고, 나약한 민주화 세력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쓸모없는 소수 세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닐까? 일제 잔재에 기초한 기득권세력이 결국 역사의 정통 주체로 자리 잡게 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영원히 버림받고 말 것 아닌가?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회원들 간에 끝없이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이 성공한다고 치기로도 주장하기 힘들었다. 고민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논객도 보이지 않았고 운동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토론해 보았자 열패감이 증폭되기 일쑤였다. 심경적으로는 패배를 거부하면서도 도처에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모멸과 오욕의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꾸준하게 한국사회현실에 관한 학습을 통해 유신독재정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다지고 우리에게 군사독재 타도투쟁의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결의했다. 당시에는 고전연구회, 농어촌문제연구회, 한국학연구회 등 이념 서클도 등록하고 활동했는데 중앙정보부와 성북서의 집중 사찰의 대상이었다. 등록 모임은 독재 정권의 정보 정치에 맞서 학생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그 덕분에 내가 활동한 비공개 학습모임은 만약 구성원 충원의 자생력만 있다면 굳이 공개등록해 사찰의 대상을 자초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구성원을 모집하므로 회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친밀해진 이후에도 지하서클이라고 하면 뒷걸음질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구성원 하나하나에 애정과 인내를 기울여야 했다. 감시를 피하

여 학습할 만한 마땅한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어려웠다. 학교에서 떨어진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하거나 감시가 소홀하다 싶으면 학교 앞 중국집이나 막걸리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다. 당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던 이들을 거명하자면 75학번에 이강로, 김종철, 양용승, 76학번에 황의락, 이일표, 강경탁, 한기범, 77학번에 김동광, 정태현, 장동현, 최종길 78학번에 장하운, 이정구, 천병윤, 홍성진 등이었다. 위에 열거한 학형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하직한 동료들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당시의 동료 한분 한분이 민주주의 전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로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미더운 존재들이었다. 후에 80년 짧은 민주화의 봄에는 ‘민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내가 속한 고대 75학번은 1학년 초에 긴급조치7호로 크게 얻어맞아 고립분산적인 활동을 해올 뿐이었다. 다만 77년 말부턴가 교내 역량이 두터워지면서 학내문제를 전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몇차례 모이기도 하였으나 78년 봄학기에도 별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아래 학번들이 보다 탄탄한 논의구조를 갖고 학내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78년 여름에는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고 두개 팀 정도를 꾸려볼 수 있었다. 그중 9·14 시위는 성공적이었으나 내가 배치된 두 번째 팀은 준비 도중에 대학연합모의사건으로 검거되어 버렸다.

이번 문집에서 나에게 배당된 부분은 78년 10월 15일 구속된 대학 연합 시위 모의 사건부분이다. 서강대 김선택 형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이런 저런 대화를 통하여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대학연합 시위 논의구조에 합류하게 된 것은 77년 초였던 것 같다. 내가 합류하기 1, 2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왔지만 당시에는 성대 장준영 형을 중심으로 서울공대의 김부섭, 서울농대의 권오훈이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여대는 후에 참여하였고 연세대는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독재정권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교란시키기 위하여 각 대학이 연계를 갖고 될수록 같은 날 또는 파상적으로 공격해보자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각기 속한 학내 사정에 따라 여전히 수많은 논의가 필요했고, 개인 사정에 따라 활동가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모임에서는 각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며, 적절한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사

28년 만에 쓰는 자술서

회나 국제정세 분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아쉽게도 거사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 몇 차례나 연기되었다. 78년 가을, 서울대 교내 수사과정에서 연합시위 모의내용이 전모가 드러나고 각 학교 대표들까지 검거되면서 연합 시위는 모의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고대 출신 구속자 75학번 김성남 씨는 새문안 교회의 활동가로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나 서울대와 역할 분담과정에서 구속되었다.

물론 대학 연합 시위가 당시 역량을 무시한 시기상조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신 독재정권의 최신 병기였던 긴급조치가 75년에는 위력을 발휘하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약발이 떨어지면서 77, 78년에는 각 대학의 역량이 강화되어 가는 추이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78년 초겨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노란 딱지를 붙여 요시찰로 표시하였다. 절도죄로 들어온 소년수가 대학생 신분인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자기 인생살이를 얘기하던 중 내게 말했다. 겨울 살기는 차라리 교도소가 좋다고 말이다. 긴급조치를 둘러싼 공방전만이 우리의 전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요즘 얼마만에 보는 지인들한테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은 최악이다. 혹시 스스로 긴급조치 훈장으로 달고 다니면서 행세하려는 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진실로 긴급조치를 기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의와 싸우고 우리 시대의 과제를 실천하는 일 뿐이다.



정상시_ 한신대 신학과 75학번.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회장, 기독교사회운동연합 부회장, 가장생명선교연대 회장, 한국기독교청로회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안민교회 담임목사(현)

오랜 만에 자술서를 쓰는 기분이다. 28년 전, 그때의 자술서

는 말이 자술서지 사실은 타술서였다. 30년 만에 비로소 사건에 대한 자술서를 쓰게 된 셈이다. 긴급조치9호 30주년 이제야 그때를 돌아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확보된 게 아닌가 싶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건을 돌아보고 역사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모양이다. 성경의 복음서도 예수의 사후 30년쯤 지나 편집되고 집필되었다. 나에게 긴급조치9호는 무엇이었나? 한마디로 불행이자 행운이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이 나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주었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본론에 들어가겠다.

사건 전야 항

1977년 4월 7일,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이 일어난 전후 상황을 잠깐 일별하고자 한다. 나는 1975년 한신대에 입학하였다. 봄꽃이 만발한 수유리 캠퍼스에서 낙원같은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낙원(?)에서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한달 만에 학교 교문에 빗장이 쳐졌다. 한신대 휴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같은 날 고려대 휴교령과 한신대 휴업령이 긴급조치7호와